

## 정동원 "부캐 'JD1' 때문에 번 돈 다 써...파산할 수도"

등록 2025.03.22 16:47:45



[서울=뉴시스] 가수 정동원이 13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라이브 하우스에서 두 번째 정규앨범 '키다리의 선물' 발매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제공) 2025.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가수 정동원이 부캐릭터 'JD1'의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22일 오후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는 두 번째 정규 앨범 '키다리의 선물'로 컴백한 정동원이 출연했다.

이날 정동원은 "제가 아주 작았을 때부터 (팬들이) 항상 지켜봐 주시고 묵묵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 1집 앨범 제목을 '그리움,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지었다"며 "이제는 제가 키다리 아저씨의 입장이 돼서 팬들을 묵묵히 지켜주고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래퍼 김하온이 타이틀곡 '흥!'에 피처링으로 참여한 점을 언급하며 "'고등래퍼' 때부터 김하온님 팬이었다. 힙합 피처링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하온 님이 떠올라서 먼저 디엠(DM)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정동원은 최근 쇼케이스에서 JD1이 자신의 부개라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동원이 번 돈을 JD1이 다 썼다"며 "JD2가 나오면 파산할 거다. JD1이 컴백하려면 정동원이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